

第18次 定期總會 및 第45次 理事會 開催

- 第10代 會長에 安秉華 한전사장 選任 -



韓國原子力産業會議 第18次 定期總會 및 第45次 理事會가 2월21일 韓電本社 회의실에서 任員 및 會員社代表, 個人會員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總會에 앞서 열린 第45次 理事會에서는 '88년도 사업결산보고 및 잉여금처분(안)을 승인하였고, 특히 임기만료된 韓鳳洙회장의 후임으로 安秉華 韓電社長을 第10代 會長으로 選任하였다.

總會에서 新任 安秉華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原子力發電은 國家發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나 近來에 이르러 原子力安全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보도 및 反核活動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原子力弘報에 대하여 좀더 積極的이고 組織的인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여러분이 物心兩面으로 성원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가 있었다.

이날 附議案件으로 상정된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승인과 함께 任期가 만료된 理事 및 監事에 대한 任員選出이 있었는데 李京雨, 李昌健감사는 連任되었고 새로 選任된 理事는 다음과 같다.

韓榮成 科學技術處 原子力局長

李匡根 韓國重工業(株) 社長

辛基祚 韓國電力技術(株) 社長

李教塔 韓國電力補修(株) 社長

또한 民間베이스의 國際協力を 위해 韓·佛原子力協力學書 交換 承認과 함께 規程一部分의 改正 및 制定과 기금별도관리운영에 대한 승인도 있었다.

● 新任 安秉華會長 프로필 ●

“ 學究熱 높은
專門經營人 ”



서울대 文理大(英文學科)를 졸업하고 軍
통역장교를 거친 후 京畿高 英語교사로 재직
한 바 있는 學者風의 얼굴.

浦鐵, 韓重 사장을 이미 거쳐 國營기업체
전문경영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61년 大韓重石에서 社會生活의 첫발을 내
디뎠으며, 68년 당시 사장이었던 朴泰俊 포철
회장과 浦鐵 창설 멤버에 합류해 韓重사장으
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주로 제철업계에 관
계해왔다.

특히 이 기간에 근무의 성실성과 탁월한
語學實力을 인정받아 恒容 엘리트들이 거치
는 管理와 經營의 길을 착실히, 그리고 비교
적 순탄하게 밟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철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적자운영
으로 허덕이던 현 東部제강의 전신인 日新제
강을 관리해 2년만에 黑字기업으로 전환시킬
만큼 탁월한 경영 솜씨를 보였다.

이러한 경영능력을 정부로 부터 높이 평가
받아 87년 韓重사장으로 발탁되어 不實經營
의 正常化에 주력해 오다가 88년 2월 제6공
화국의 출범과 함께 기업인으로는 처음 商工
部 장관에 기용되어 화제를 낳기도.

매사에 적극적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일은 반드시 끝내고야마는 철저한 성격의 소
유자로 정평이 나 있다.

英語와 日語에 능통한 것은 이미 自他가
공인하는 사실.

주위 사람들로 부터 「책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독서를 좋아하는 讀書狂.

취미는 역시 독서. 골프도 가끔 즐기는 편.

부인 金泰順 여사(54세)와의 사이에 2남1
녀를 두었다.

(학력 및 경력)

'58. 9	서울대 문리대 졸업
'59. 11~'61. 7	경기고등학교 교사
'61. 8~'68. 3	대한중석광업(주)
'68. 4~'82. 10	포철(주) 상무이사, 부사장
'82. 10~'85. 1	동진제강(주) 사장
'85. 1~'85. 2	동부제강(주) 사장
'85. 2~'87. 7	포철(주) 사장
'87. 7~'88. 2	한국중공업(주) 사장
'88. 2~'88. 12	상공부장관
'89. 1~	한국전력공사사장